



인사이드 3D프린팅 콘퍼런스 & 엑스포 2015 대규모 콘퍼런스 통해 3D프린팅 세계적 추세·신기술 확인

인사이드 3D프린팅 콘퍼런스 & 엑스포 2015가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렸다. 인사이드 3D프린팅 콘퍼런스 & 엑스포는 전 세계 3D프린팅 산업의 최신 트렌드, 관련 정책,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로, 뉴욕, 런던, 산타클라라, 베를린, 싱가포르 등 세계 10여개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 순회행사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20명의 연사 참여한 대규모 콘퍼런스 진행

킨텍스와 미국 전시 주최기관 메클러미디어(Meckler Media)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15개 이상의 세션으로 구성된 콘퍼런스와 3D 프린팅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인사이드 3D프린팅 콘퍼런스는 첫날인 24일에는 3D프린팅 산업 리포트(Wohlers Report)로 널리 알려진 테리 울러스(Terry Wohlers)가 '3D프린팅의 새로운 지평', 세계 1위 스트라타시스의 한국 지사장 다니엘 톰슨(Daniel Thomsen)이 '3D프린팅의 도입이 제조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둘째날인 25일에는 컬러 3D프린팅으로 유명한 아일랜드 엠코어 테크놀로지(MCor Technologies)의 브라이언 페랜드(Bryan Ferrand) 부회장이 '컬러 3D프린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국내 대표업체 로킷(Rokit)의 유석환 대표가 '3D프린팅

에코시스템' 등 4명의 연사가 기초발표를 진행했다.

콘퍼런스의 첫 기초연설을 한 테리 울러스는 "적층 가공기술과 3D프린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지금보다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라며 "수많은 기업들과 정부기관, 투자자들이 3D프린팅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Next big thing'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니엘 톰슨 스트라타시스 한국 지사장은 "점점 더 많은 제조업자들이 소량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적층가공 기술 '직접 디지털 제조(DDM)'를 사용하고 있다. DDM은 3D 카드 데이터에서 최종 제품을 3D프린터로 바로 제작하는 제조 공정으로, 최종 제품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 기능 테스트를 하거나, 금형 없이 소량의 최종 사용 파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탈공업화 시대의 디자인과 컨슈머리즘을 위한 새로운 모델(리오넬 T 딘 FutureFactories 설립자) ▲의료 CAD/CAM과 프린팅, 인체 3D와 프린팅(문영래 조선대병원 의사) ▲3D프린팅 2.0과 제조혁신(백소령 3D시스템즈 부장) ▲3D프린터, 3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업가(고산 ATEAM Ventures CEO) ▲3D 프린팅을 활용한 디자인과 아트 비즈니스 창업(최성권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 등 총 20명의 연사들이 제조업, 패션 의류, 엔지니어링, 메디컬 및 바이오, 산업 디자인, 보석 가공, 창업가 정신, 향후 전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전략산업인 3D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첨단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3D 전시회

세계 메이저 기업의 첨단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에는 미국 스트라타시스, 아일랜드 엠코어 테크놀로지, 독일 SLM, 엔비전텍, EOS, 리얼라이저, 이탈리아 DWS, 대만 XYZ Printing, 중국 티어타임 등 세계 우수 기업의 제품은 물론 국내 3D프린팅 선두주자인 로킷, 대림화학, 캐리마, 험시바, 하이비전, TPC 메카트로닉스, 아나츠 등 약 80여개 기업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했다.

글로벌 3D프린팅 전문기업인 스트라타시스는 아이디어 시리즈와 디자인 시리즈, 프로덕션 시리즈 등 아이디어 개발부터 프로토타이핑, 직접 디지털 제조까지 구현할 수 있는 3D프린터를 전시했다. 로킷은 새로운 바이오 3D프린터 시제품과 데스크톱 3D프린터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특히 3D프린터 'CHOCO SKETCH'는 가정이나 커피숍, 빵집 등에서 초콜릿을 재료로 다양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았다.

전시회 관계자는 "인사이드 3D프린팅 컨퍼런스 및 전시회는 단순 교류의 장을 넘어 실질적인 세일즈 및 마케팅의 장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쉽게 접해볼 수 없었던 금속 소재 및 관련 제품, 바이오 프린터, 각종 산업 장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 사무국은 인사이드 3D프린팅 콘퍼런스 & 엑스포 2015 참관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시회 참관(30.4%)과 3D 프린터 및 관련 서비스 구매(29.7%)를 위해 전시회에 방문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구목적(콘퍼런스 포함)을 위한 참가도 14.6%로 조사됐다. 참관객 중 31.4%가 의사 결정권자였으며, 전체 참관객의 68%가 올해 전시회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내년 전시회에도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www.inside3dprinting.co.kr



1. 인사이드 3D프린팅 콘퍼런스 전경 2. 전시회 전경 3. 스트라타시스 부스 4-5. 3D프린팅으로 제작한 피규어